

職業能力開發研究  
第12卷(1), 2009, 4, pp. 141~162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 교육수준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취업선택 결정 요인

오 은 진\* · 민 현 주\*\* · 김 지 현\*\*\*

본 연구는 학교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서 직업경험을 했던 여성들 중 첫 직장 이후 노동시장 퇴장을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그들의 직업상태(취업/미취업) 및 직업지위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술적 통계를 활용하여 고학력 여성들이 첫 직장 이후 생애주기 사건과 맞물려 노동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직업이동 및 직업지위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로짓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노동이동 및 직업선택에 주요한 원인이 되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변인들을 추출한 후 이들 요인 중 학력수준별 여성의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여성들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시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또한 더 나은 직업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재로 학력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첫 직장 고용상태가 정규직이었던 경우 대졸은 그 이후 30%가 재취업 시 그 직업지위를 유지했다면 전문대졸은 20.6%, 고졸은 10.8%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 근로자보다 첫 직장으로 자영업을 경험했던 경우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시간 이상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에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경우 자신의 학력프리미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기혼여성, 교육수준, 노동시장이행, 직업지위, 노동시장참여 결정요인

투고일: 2009년 2월 27일, 심사일: 3월 10일, 게재확정일: 4월 15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unjin5@kwdimail.re.kr), 교신저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newrules@kwdimail.re.kr)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jihyunkim@yonsei.ac.kr)

## I. 문제의 제기

2007년 여성의 고등교육 수혜는 남성과 동등하다고 볼 수 있으며,<sup>1)</sup> 학교단위의 고급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양적인 차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직업세계 진출과 관련해서도 청년층에서 남녀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차이는 점점 좁혀지는 추세이다. 1998년에 25~29세 청년층의 경우 대졸자의 남녀 고용률의 차이는 23.2%였으나, 2007년에는 5.6%로 차이가 감소했다. 이 경우 '98년도 83%였던 남성의 고용률이 77.7%로 감소한 탓도 있지만 '98년 당시 59.8%였던 여성의 고용률이 72.1%로 급상승한 것이 더 큰 주요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은 대부분 기혼이 되는 30대에 접어들면 고용률이 급하락하면서 지속적인 비경제활동상태에 놓이게 되는 L자형을 취하게 된다. 고학력 여성들이 L자형으로 취업이 급하강하는 시점은 '결혼'과 '임신·출산'이라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다(주무현·강민정, 2008; 박수미, 2003; 김영옥, 1999).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패턴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개인적으로도 경력단절이라는 경력의 불연속성 때문에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자신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고용상태 및 직종, 업종, 임금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김혜원 외, 2005), 국가차원에서는 인적자본의 손실로 인해 지속적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요인이 된다. 특히 고학력 여성이 노동시장 퇴장 이후 재진입하지 못하는 한계는 개인에 대한 교육투자가 시장으로 환원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국가적 손실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학력 여성들은 왜 결혼 및 출산 이후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는 것인지, 어떠한 이유가 그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것은 고급인적자본의 유실을 막고 국가적 총량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지속적 발전과 자아실현을

1) 교육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남성 대졸자는 모두 248,163명이었으며 여성 대졸자는 244,735명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판단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시 이들의 직업행태를 살펴본 결과 여성들의 학력수준과 경력단절 이전에 경험했던 직업과 수입수준, 그리고 현재 접근 가능한 직종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여성의 약 31.7%는 전문직 및 준전문직에 취업하는 반면, 단순노무직에는 약 9.8% 정도의 여성만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구명숙 외, 2005). 특히 주목할 점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에는 여성집중직종으로 분류되는 일자리(여성근로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일자리)에 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미국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이 저학력 여성들보다 노동시장 복귀가 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재취업시기는 학력에 상관없거나 오히려 고학력 여성들이 저학력 여성들보다 더 늦게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박수미, 2003; 이재열, 1996; Klerman & Leibowitz, 1999). 이는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에게, 특히 경력단절을 경험한 고학력 여성들에게 접근 가능한 직종이 다양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적합한 취업교육의 부재와 이들 경력단절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의 다양성 부족을 들 수 있다(장서영 외, 2007). 따라서 경력단절기간이 짧은 여성들은 과거의 경력에 집착하지만 경력단절기간이 길어질수록 새로운 직종이나 창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김영경, 2007).

본 연구는 학교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서 직업경험을 했던 여성들 중에서 첫 직장 이후 노동시장에서 퇴장을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그들의 직업상태(취업/미취업) 및 직업지위 등에 대해 우선 파악하고자 한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게 되는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처음 직장의 직업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또는 다른 직업지위로 이동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노동시장 이후 첫 진입에서 가졌던 직업지위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첫 직장을 이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혼여성들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는 다양한 유형들을 분류하고(은기수·박수미, 2002), 이들 유형들과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여성의 직업선택에 어떻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고학력 기혼 여성들 중 노동시장

이탈 이후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이 직업선택에 주요한 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하여 고학력자들 중에서도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자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임금차 및 취업된 직종을 근거로 교육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Kane & Rouse, 1999; Grubb, 1997; 오은진, 2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업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인만큼 이들 학력차가 다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II. 자료의 특성 및 연구방법

### 1. 자료의 특성

본 연구는 여성의 생애주기 사건과 경제활동에의 참여결정 및 참여유형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2007년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집한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최근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급격한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의 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욕구의 증대라는 두 가지 커다란 사회적 관심사를 이해하고 이로 인해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수집된 자료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가 기존의 인구학적·경제학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이터들과는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관련 연구에 갖는 이점인 결혼, 자녀출산, 이혼 등의 경험과 취업경험 자료를 연계하여 수집함으로써 성인지적이며,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대상은 가구 내 19~64세 여성전체와 조사대상 여성의 배우자로 한하며 가구 내 해당연령 여성이 추적대상인 원표본이다. 농어가를 포함한 전국 대표표본을 추출하였으며, 표집 틀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구로 하였고,

거주지역에 의거한 다단계 층화확률추출법에 의해 대상 가수를 표집한 자료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제1차년도 주요 조사내용은 크게 여성의 가족, 여성과 일, 여성과 일상 및 여가의 세 가지 주요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상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여성 개인과 가족 구성원들의 행위양식에 다양성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자료는 여성의 생애사건과 경제활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주요한 생애사건-결혼상태 변화, 출산 등-을 전후로 여성들의 취업상태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고, 학력수준별로 기혼여성들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학교 졸업 후 첫 직장경험이 생애주기 사건과 함께 이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결정과 그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첫 직장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참여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25세 이상 55세 미만의 여성들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분석대상 집단의 연령을 이같이 제한한 주된 이유는 25~54세 연령집단의 여성들 대부분은 결혼, 출산, 자녀양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경험하면서 이들 생애주기 사건들이 노동시장참여 결정과정에 보다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탈, 그리고 노동시장참여 유형에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진입에의 결정에 생애주기 사건이 미치는 효과를 보다 뚜렷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첫째, 기술적 통계를 활용하여 고학력 여성들이 첫 직장 이후 생애주기의 사건과 맞물려 노동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직업이동 및 직업지위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다. 둘째, 노동이동 및 직업선택에 주요한 원인이 되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변인들을 추출하여 이들 요인 중 학력수준별로 여성의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로짓 분석모델을 이용하여 현재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여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참여결정모델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되며, 첫째는 임금근로자로의 진입결정에 대해, 둘째는 자영업으로 진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적용한 로짓분석 모델은 학력 수준(고졸, 2년제 초대졸,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첫 일자리경험(전문직, 사무행정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자영업 등), 전체 자녀의 수 및 미취학아동 여부, 그리고 첫 결혼과 첫 출산을 전후로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참여 경험여부를 포함하며, 이들 변수들이 현재 여성들의 취업여부 결정과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으로의 진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델 및 방법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결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였다는 점이다. 첫 번째 분석모델은 일반적인 경제활동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모델은 경제활동참여유형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양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다항로짓 모델을 이용하여 미취업-임금근로자-자영업의 모델로 분석하지 않고 미취업-임금근로자, 미취업-자영업의 독립된 모델로 분석한 이유는 결혼하였거나 자녀를 둔 여성들의 취업욕구가 임금근로자로의 진입과 자영업으로의 진입과정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미취업상태의 여성들이 임금근로자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를 갖는 여성집단과 미취업상태에서 자영업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여성집단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은진 외, 2008).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으로부터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으로의 진입과정을 독립된 과정으로 가정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과정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학력 수준에 따른 첫 직장에서 현재 고용상태로의 이행 실태

다음에서 제시하는 <표 1>은 첫 직장 시 임금근로자(정규 4,590명, 비정규 777명)였던 여성 총 5,367명에 대해 학력에 따라 현재 고용 상태와 이행을 나타내고 있다. 즉, 첫 직장을 이탈했던 경험을 가진 여성들 중 현재의 노동상태를 정규(867명), 비정규(524명), 비임금(756명), 미취업(3217명) 상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직업지위와 형태가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이탈시점이 여성

의 생애사와 관련하여 명백히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모두 기혼여성으로 대부분은 결혼, 출산, 육아의 문제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교육수준에 따른 첫 직장→현재 직장 이동에서 정규직 유지 비율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졸여성 중 첫 직장으로서의 이행에서는 정규직이 86.3%, 비정규직이 13.7%이며, 전문대졸은 정규직 86.8%, 비정규직 13.2%, 대졸은 정규직이 82.8%, 비정규직 17.2%로 나타나고 있어 첫 직장으로서 이행 시 정규/비정규에 대한 학력 간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4년제 대졸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첫 직장이 정규직인 경우 현재도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은 학력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고졸여성의 경우 첫 직장서 정규직에 있던 경우 현재도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은 10.8% 정도이나, 전문대졸의 경우 20.6%, 4년제 대졸의 경우 30.0%로 교육수준별 정규직 유지비율에서는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둘째, 4년제 대졸 여성의 경우, 첫 직장을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취업자로 남아 있을 확률이 다른 학력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여성의 경우 과거 정규직이었던 여성이 현재 미취업 상태로 전락한 경우는 61.8%, 전문대졸은 64.7%, 4년제 대졸은 54.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경우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고졸 비정규직 여성이었던 경우 현재 미취업상태는 57.5%, 전문대졸 66.4%, 4년제 대졸은 50.8%로 나타나, 4년제 대졸자들의 경우 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력자들에 비해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첫 직장 시 임금근로자가 현재 비임금근로자로 이동하는 비율은 고졸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소하기는 하지만 비정규직 여성이었던 경우 비임금근로자로 이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여성의 경우 정규직→비임금 근로자로 이행하는 비율은 16.8%인 반면, 비정규직→비임금 근로자로의 이동은 18.4%로 나타났고, 전문대졸의 경우는 정규직→비임금 8.0%, 비정규직→비임금 8.2%, 4년제 대졸은 정규직→비임금 10.8%, 비정규직→비임금 15.3%로 나타나 고졸의 경우 비임금 근로자로의 이동이 보다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첫 직장 시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지속적으로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이, 첫 직장 시 비정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졸여성

의 경우, 정규직→정규직 이동은 10.8%인 반면, 비정규→정규 이동은 6.4%, 전문대졸의 경우, 정규직→정규직 이동은 20.6%, 비정규→정규 이동은 13.1%, 4년제 대졸은 정규직→정규직 이동은 30.0%, 비정규→정규 이동은 13.1%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59.9%가 첫 직장 임금근로자에서 현재 미취업자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학력별 첫 직장 일자리 구분과 현재직장 일자리 이행실태\*

학력	첫 직장		현재 직장			이행률**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미취업	
고졸	임금 근로자 (3,066)	정규직 2,647명(86.3%)	임금 근로자	정규직 285명	10.8%	
				비정규직 278명	10.5%	
			비임금 근로자***	446명	16.8%	
			미취업	1,637명	61.8%	
	비정규직 419명(13.7%)	임금 근로자	정규직 27명	6.4%		
			비정규직 73명	17.4%		
비임금 근로자		77명	18.4%			
		미취업	241명	57.5%		
전문대졸	임금 근로자 (926)	정규직 804명(86.8%)	임금 근로자	정규직 166명	20.6%	
				비정규직 53명	6.6%	
			비임금 근로자	64명	8.0%	
			미취업	520명	64.7%	
	비정규직 122명(13.2%)	임금 근로자	정규직 16명	13.1%		
			비정규직 15명	12.3%		
비임금 근로자		10명	8.2%			
		미취업	81명	66.4%		
대졸	임금 근로자 (1,375)	정규직 1,139명(82.8%)	임금 근로자	정규직 342명	30.0%	
				비정규직 56명	4.9%	
			비임금 근로자	123명	10.8%	
			미취업	618명	54.3%	
	비정규직 236명(17.2%)	임금 근로자	정규직 31명	13.1%		
			비정규직 49명	20.8%		
비임금 근로자		36명	15.3%			
		미취업	120명	50.8%		

주: 1) \* 첫 직장에서 현재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을 제외했기 때문임.  
 2) \*\* 이행률은 학력별 첫 직장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각각 분모로 잡고 현재 직장 근무 형태에 따라 각각의 비율을 계산한 값임.  
 3) \*\*\* 비임금 근로자에는 내 사업, 무급가족종사자,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가 포함됨.

<표 2>는 현재 임금근로자 중 지급의 일자리 지위와 첫 직장의 일자리 지위를 학력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고졸학력을 가진 집단의 경우, 첫 직장에서 사무 종사자로 종사하는 비율이 48.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가 15.0%, 서비스 종사자가 12.4%, 판매 종사자가 8.5%, 단순 노무종사자가 7.7%인 반면, 현재 일자리는 사무 종사자가 23.1%, 서비스 종사자가 21.6%, 그리고 판매 종사자가 20.5%로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표 2> 학력별 현재 임금근로자의 첫 직장과 현재 직장의 직업지위 비교

직업 지위	고졸					전문대졸					대졸				
	첫 직장		현재 직장		증감 (%)	첫 직장		현재 직장		증감 (%)	첫 직장		현재 직장		증감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①	7	1.0	-	-	-1.0	1	0.4	-	-	-0.4	5	1.0	-	-	-1.0
②	21	3.1	54	7.9	4.8	72	28.5	100	38.9	10.4	249	51.1	316	65.0	13.9
③	323	48.4	158	23.1	-25.3	125	49.4	111	43.2	-6.2	182	37.4	132	27.2	-10.2
④	83	12.4	148	21.6	9.2	38	15.0	23	8.9	-6.1	37	7.6	9	1.9	-5.7
⑤	56	8.5	140	20.5	12.0	3	1.2	11	4.3	3.1	4	0.8	19	3.9	3.1
⑥	2	0.3	-	-	-0.3	-	-	-	-	-	-	-	-	-	-
⑦	100	15.0	25	3.7	-11.3	7	2.8	1	0.4	-2.4	8	1.6	5	1.0	-0.6
⑧	22	3.3	50	7.3	4.0	3	1.2	4	1.6	0.4	1	0.2	-	-	-0.2
⑨	53	7.9	109	15.9	8.0	4	1.6	7	2.7	1.1	1	0.2	5	1.0	0.8
⑩	1	0.1	-	-	-0.1	-	-	-	-	-	-	-	-	-	-
합계*	668	100.0	684	100.0		253	100.0	257	100.0		487	100.0	743	100.0	

주: 1)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숙련종사자, ⑦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2) \*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을 제외했기 때문임.

전문대졸의 경우 첫 직장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8.5%, 사무종사자가 49.4%, 그리고 서비스 종사자가 15.0%를 보였으며, 현재 일자리 분포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8.9%, 사무 종사자가 43.2%로서 취업하고 있는 전문대졸 여성들은 대부분 전문가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에 비해 현재 취업여성들의 직종별 분포변화에서는 전문직의 증가가 두드러지며(10.0% 증가), 그 다음으로는 판매직의 증가(3.1% 증가)가 주목할 만하다. 4년제 대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첫 직장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51.0%, 사무종사자가 37.4%, 그리고 서비스

종사자가 7.6%를 보였으며, 현재 일자리 분포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65.0%, 사무 종사자가 27.2%로서 취업하고 있는 대졸 여성들은 대부분 전문가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첫 직장과 비교해서 14.0%나 증가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직업지위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으나, <표 1>의 결과와 함께 논의한다면 비정규직이면서, 전문가 관련 종사자들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30·40대 여성들이 훈련 과정에서 지도자과정을 선호하고 이쪽의 진출이 많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장서영 외, 2007)와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전문가 관련 직종의 진출이 직업형태가 양호한 분야로 진출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30·4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형태와 비정기적인 직장이지만 전문가의 형태를 유지하는 지도자 직종이 이들 집단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 2. 노동시장참여 결정요인 분석

앞서 제시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3>은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분석에 포함된 전체 사례 수는 모두 5,450명의 여성이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첫 직장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현재의 경제활동여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분석에는 『여성가족패널조사』가 정의한 ‘첫 직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만을 본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본 분석은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사건 중에서 결혼과 출산 및 집중적인 자녀 양육기 동안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집중적인 결혼과 출산 및 자녀양육시기를 경험하면서, 경제활동에의 욕구가 높은 만 25세부터 만 54세 사이의 여성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에서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비중은 약 43.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의 비율은 전체 대비 약 24.2%이며, 창업 등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약 12.0% 정도인 것으로 기술통계결과는 보여 주고 있다(<표 3> 참고).

분석대상 여성들의 분포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은 약 53.6%, 2년제 대학 졸업자는 16.9%, 그리고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여성 집단

은 약 2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부는 이 연구의 주요변수이므로 고졸집단, 2년제 대졸 집단, 4년제 대졸이상 집단으로 분류하여 2년제 대졸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첫 취업경험이 현재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첫 취업의 직종이 여성 집중 직종이었는지와 직업위신에 초점을 두었다. 첫 취업 시 관리직,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비율은 약 15.1%로 나타났으며, 사무, 서비스 및 판매종사직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 여성비율은 약 56.3%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능 및 장치조립 종사자로 첫 일자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약 14.7%,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였던 여성은 약 7.3%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첫 직업으로서 자영업을 경험했던 여성들의 비율은 약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연구에서 여성들의 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성역할에 대한 태도, 보상에 대한 태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 본 연구는 첫 결혼과 첫 출산을 즈음으로 하여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는지를 측정하였다. 첫 결혼과 첫 출산을 전후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더라도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갖지 않음으로써 일을 하지 않은 여성들만을 노동시장이탈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한 결과 첫 결혼을 전후로 노동시장이탈을 경험한 여성들의 비율은 약 2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출산을 전후로 노동시장이탈을 경험한 여성들의 비율은 약 9.0%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초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들은 서구 선진국의 여성들과는 달리, 아직도 출산보다는 결혼이 노동시장 경험단절에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인구학적 통제변인들로서 살펴본 전체 자녀 수에서는 평균 1.7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자녀를 한 명이라도 두고 있는 여성은 약 33.9%로 나타났다.

&lt;표 3&gt;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결정요인 분석: 기술통계

구분		분포(%)
종속변수	경제활동참여 여부	43.6
	임금근로자 취업 여부	24.2
	자영업 여부	12.0
인적자원변인	교육(고등학교 졸업)	53.6
	교육(2년제 대학 졸업)	16.9
	교육(4년제 대학 졸업 이상)	29.5
첫 취업 경험유형	관리 및 전문직/준전문직	15.1
	사무,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56.3
	기능 및 장치조립 종사자	14.7
	단순노무직	7.3
	자영업	6.6
인구학적 변인	연령 25~34세	30.1
	연령 35~44세	40.8
	연령 45~54세	29.1
가족변인들	전체 자녀 수(명)	1.7
	미취학자녀 여부	33.9
	첫 결혼 전후 노동시장 이탈 여부	29.4
	첫 출산 전후 노동시장 이탈 여부	9.0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 중간 값)	300.0
	로그화 된 총 가구소득	5.7

생애주기 사건과 첫 직장의 경험이 현재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로서 본 연구는 로짓분석 모델을 적용하였다. <표 4>은 로짓분석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표 4>의 첫 번째 칼럼은 전반적인 경제활동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며, 두 번째 칼럼은 임금근로자로의 진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마지막 칼럼은 자영업으로의 진입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4>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결정요인 분석: 로짓분석 모델

변수		경제활동참여	경제활동참여 유형	
			임금근로	자영업
인적자원 변인	교육(고등학교 졸업)	0.129 (0.093)	-0.012 -0.014	0.033 (0.153)
	교육(4년제 대학 졸업 이상)	<b>0.340**</b> (0.093)	<b>0.298**</b> -0.101	<b>0.317*</b> (0.153)
	(준거집단: 교육 2년제 초대졸업)	-	-	-
첫 취업 경험유형	사무,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0.409** (0.087)	-0.496** (0.092)	0.134 (0.139)
	기능 및 장치조립 종사자	-0.223 (0.127)	-0.337* (0.142)	0.038 (0.202)
	단순노무직	-0.353* (0.178)	-0.209 (0.199)	-0.445 (0.324)
	자영업	<b>0.419**</b> (0.16)	<b>-1.731**</b> (0.238)	<b>1.617**</b> (0.185)
	(준거집단: 관리 및 전문직/준전문직)	-	-	-
인구학적 변인	연령 35~44세	-0.069 (0.082)	<b>-0.286**</b> (0.092)	<b>0.689**</b> (0.144)
	연령 45~54세	-0.031 (-0.107)	<b>-0.543**</b> (-0.123)	<b>0.941**</b> (0.167)
	(준거집단: 연령 25~34세)	-	-	-
가족 변인들	전체 자녀 수	-0.129** (0.042)	-0.333** (0.048)	0.084 (0.063)
	미취학자녀 여부	<b>-1.234**</b> (0.077)	<b>-0.910**</b> (0.089)	<b>0.961**</b> (0.128)
	첫 결혼 전후 노동시장 이탈 여부	<b>-0.615**</b> (0.068)	<b>-0.714**</b> (0.083)	-0.174 (0.104)
	첫 출산 전후 노동시장 이탈 여부	<b>-0.357**</b> (0.108)	<b>-0.404**</b> (0.131)	0.095 (0.162)
	로그화 된 총 가구소득	0.130** (0.023)	0.146** (0.027)	0.031 (0.033)
<b>상수</b>		-0.117 (0.163)	-0.341 (0.186)	<b>-2.976**</b> (0.262)
<b>전체 사례 수</b>		5450	5450	5450
<b>R<sup>2</sup></b>		762.71	700.20	333.96
<b>-2Log-Likelihood</b>		6580.3	5411.08	3428.63

주: 1) ( ) 표준화된 오차.

2) \* p<0.05; \*\* p<0.01.

우선 전반적인 경제활동참여결정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인적자원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학력별 노동시장참여 결정의 상이성 논의와 일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년제 대학졸업자를 기준으로, 최종학력으로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2년제 대학 졸업여성들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고등학교 졸업여성들과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보다는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첫 취업 경험이 현재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관리 및 전문·준전문직 경험자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첫 직장에서 사무, 서비스 및 판매종사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관리 및 전문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보다 현재 취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약 34.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직업으로 단순노무직을 경험한 여성들도 관리 및 전문직 출신 여성들보다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 및 장치조립과 단순노무 종사자들은 관리 및 전문직 종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과 현재 취업가능성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직업으로서 자영업을 경험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약 52.0%의 정적 효과).

여성들의 경력지향성에 대한 태도의 효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가 기대한 바와 같이, 첫 결혼 전후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들보다 현재 취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첫 출산을 전후로 노동시장 참여의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도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현재 취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분석결과는 보여 주고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앞서 기술통계 분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즈음하여 경험하는 일·가정양립의 문제가 생애주기에 걸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의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가치관 및 태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가족관련 정책은 일하는 여성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이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일과 가정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과 출산시기 즈음하여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욕구가 강해지면서 가정생활, 특히 자녀출산과 양육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은 실제로 취업단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기존연구는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자녀관련 변수들은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녀 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자녀 한 명이 증가할수록, 여성들이 취업할 가능성은 약 13.0% 정도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결과는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미취학 자녀가 가정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여성들이 취업할 가능성이 무려 약 71.0% 정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취업을 결정하는 데 자녀의 존재, 특히 미취학 자녀의 존재는 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끝으로, 연간 가구총소득의 효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기대와는 달리,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의 참여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 특히 자녀를 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가장 크게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경제적 문제이다. 여성들, 특히 자녀를 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의 교육이나 생활비의 문제 등 경제적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었으며, 따라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성들의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로 제한하였으며, 특히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 여성 비율이 전체 분석대상 여성들의 약 31.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변인에 의해 가구소득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활동에의 참여유형에 따른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로의 진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학력효과는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2년제 대학졸업 여성들보다 임금근로자로 진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2년제 대학졸업 여성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첫 직장경험의 효과에서는 관리 및 전문직을 경험한 여성들이 다른 직종에 근무했던 여성들보다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첫 직업으로서 자영업의 형태를 경험한 여성들이 현재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효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제활동참여 결정과정과는 달리, 임금근로자로의 취업결정요인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25세에서 34세 연령집단에 비해 35~44세 연령집단이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확률은 약 25.0%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5~54세 연령집단은 약 42.0%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결과는 보여 주고 있다.

결혼과 자녀출산 전후의 노동시장경험이 현재 임금근로자로의 진입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첫 결혼 전후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임금근로자로 진입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며, 이러한 노동시장 단절경험의 효과는 출산을 전후로 이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결혼 전후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들이 현재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약 5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출산 전후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확률이 약 33.0% 낮은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또한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미취학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모델인 자영업으로의 진입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효과에서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참여결정이나 임금근로자로의 진입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2년제 대학졸업 여성들보다 자영업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의 유형에 상관없이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첫 취업경험의 효과를 살펴보면, 직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만 첫 직업으로 자영업의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현재에도 자영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앞선 임금근로자로의 진입결정에서는 자영업의 경험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점과 비교해보면, 자영업을 경험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또는 노동시장 재진입 시에도 다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연령집단의 효과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로의 진입에서 나타난 효과와는 대조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영업으로의 진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34세 연령집단에 비해 35~44세 집단은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5~54세 연령집단은 약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령효과에 관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근로자로의 진입이 보다 용이한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으로의 진입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 결혼 및 자녀출산 전후의 노동시장경험 효과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임금근로자로의 진입과정과는 달리, 결혼과 출산의 생애주기사건을 전후로 한 노동시장 경험은 자영업으로의 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취학자녀가 집안에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으로의 진입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결정과 참여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2년제 대학졸업 여성들보다 자영업이든 임금근로자의 형태로든 경제활동참여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여성과 2년제 대학졸업여성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첫 취업경험이 현재 노동시장참여 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하면, 첫 취업에서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진입했던 여성들은 현재에도 취업하고 있을 확률이 다른 직종에 취업했던 여성들보다 높은 반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데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첫 취업으로서 자영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현재 임금근로자보다는 다시 자영업으로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로의 진입과 자영업에의 진입과정에서도 연령집단의 효과는 유의미하게 차별화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근로자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영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자녀효과에서는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미취학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여자체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것뿐 아니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으로의 진입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논의되었듯이, 자녀양육이 여성의 취업결정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참여 연속성이 현재의 취업결정 및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면, 첫 결혼 전후나 첫 출산 전후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현재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결혼과 출산을 전후로 경력단절 경험은 임금근로자로 진입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으로의 진입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여성이 생애주기인 결혼·출산 등의 생애사건으로 노동시장의 이탈과 재진입을 반복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인적자본이 왜곡·저평가되는 노동시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인구 및 사회적 요인에서 찾고자 하였다. 서두에서 기술한 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 및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첫 직장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대졸 정규직인 경우는 30.0%, 전문대졸 정규직인 경우 20.6%, 고졸은 10.8%로 학력이 높을수록 예전의 고용상태를 회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에도 학력 프리미엄은 존재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25~54세 연령대에서 각 학력별로 어떤 학력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학력이라고 분리되는 2년제 학력자들의 경우 고졸학력자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년제 전문대졸자들에 대한 별도의 특성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전문대졸과 대졸집단에서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한 경우, 과거 사무직 종사자들이었던 경력자들은 현재 상당 비율 감소하고 대신 전문가 집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다. 물론 고졸자들도 이 집단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이 분야 직종에 종사자가 더 많은 폭으로 증가한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고학력일수록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일에 더 매진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여성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교육서비스 분야의 경우, 방과 후 및 특기적성 교사, 학원교사, 학습지교사 등이 모두 전문가집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집단에 여성 재취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고학력일수록 전문가 집단이 아니면 취업할 의사가 적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취업경험과 관련하여 첫 직장을 전문직, 준전문가 집단으로 분류했을 경우, 사무,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로 첫 직장을 경험한 집단보다 현재 취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첫 직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른 연구들과 결과를 같이 했다.

셋째, 첫 출산 이후 노동시장에서 이탈을 경험했던 경우,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남아 있었던 경우보다 현재 취업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출산 이후 이탈한 사람들도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의미하게 현재 취업가능성이 낮았으며, 현재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도 유의미하게 취업할 확률이 낮았다.

넷째, 첫 직장으로 자영업을 경험했던 경우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관리 및 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취업과 관련한 정책방향의 수정을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판단된다. 기존의 청년층 여성취업의 정책 방향은 창업보다는 고용에 좀더 무게 중심을 실어 왔다. 그러나 이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에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향후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며 생산적이기 때문에 인턴 등 취업을 위해 소요하는 비용을 창업으로 선회하는 것도 더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분석과 상이한 결과는 가구소득에 따른 직업선택의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여성들의 현재 취업 여부가 더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기 쉬운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빗나간 결과라 해석이 주목되는데, 현재 30~40대의 고졸 이상 학력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일을 통해 가계살림에 기여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나, 이와 관련해서는 남편 소득과의 연관 등 보다 상세한 2차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여성 노동시장에서 학력은 명백한 노동시장 진입의 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 퇴장과 재진입을 반복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재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점 때문에 이들의 노동시장 경력에 대한 설명 변수를 취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해서 학력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는 충분히 도출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고학력 여성의 L자형 취업곡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장에서 여성들이 퇴장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구명숙 외(2005). 「기혼여성의 재취업 구조에 관한 사례연구: 전업주부 재취업훈련 참가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153~167쪽, 한국가정관리학회.
- 김영경(2007).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계획과 재취업교육 요구분석 연구」, 『여성연구』, 제73권 제2호, 85~118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옥(1999). 『여성취업력의 동태적인 변화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김종숙 외(2007). 『대졸여성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과약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원 외(2005). 『주요국의 여성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민현주(2007). 「엄마의 취업과 자녀태울에 관한 동태적 분석」, 『한국사회학』, 제41권 제3호, 106~126쪽, 한국사회학회.
- 박수미(2003).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 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제36권 제2호, 145~174쪽, 한국사회학회.
- 오은진(2001). 「미국 고등교육에서의 임금 차이에 대한 효과 분석: 교육수준 및 전공영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제19권 제2호, 145~153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오은진 외(2008).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조사연구』, 여성부.
- 은기수·박수미(2002). 「여성취업이행 경로의 생애과정 씨퀀스 분석」, 『한국인구학』, 제25권 제2호, 107~138쪽, 한국인구학회.
- 이재열(1996).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제19권 제1호, 5~44쪽, 한국인구학회.
- 장서영 외(2007).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개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주무현·강민정(2008). 「기혼여성, 경력단절의 경제적 효과와 직업선택」, 『고용이슈』, 7월호, 52~75쪽,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Grubb, W. N.(1997). "The Returns to Education in the Sub-baccalaureate Labor

Market, 1984-1990”,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16 No.3, pp. 231 ~ 245.

Kane, T. J. & Rouse, D. E.(1999). “The Community College: Education Students at the Margin between College and Work”,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3 No.1, pp. 63~84.

Klerman, J. A. & Leibowitz, A.(1999). “Job Continuity among New Mothers”, *Demography*, Vol.36 No.2, pp. 145~155.

abstract

---

## Career Choice and Labor Market Transition of the Married Women by Level of Education

Eunjin Oh  
hyunJoo Min  
Jihyun Kim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y referred that it is very limited to explain the married women's labor market outcomes applying on Human Capital Theory.

The first reason is female workers with career interruption would be underestimated on job status compared to other workers when they reenter the labor market after child-caring.

Secondly, the married female workers with higher education(over college education) particularly are disadvantaged to job status because they have unstructured labor market experiences for child-caring.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figure out the critical factors to determine if the married female workers can involve in their job or no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arried women's current job status compared to their initial job status using Female and Family pannel Survey Data 1st Wave. It also analyzes the critical factors to influence on the married female worker's labor market participation, direct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education level is still very important premium factor to determine the job status and position of the women who re-enter the labor market after child-caring. Also, the women who had gotten the job experiences as a self-employed prefer to re-enter in the labor market rather than women been wage worker.

**Keyword:** The married female workers, Level of education, Return to education, Career interruption, Labor market participation